

중미 관계에서 학계의 건설적인 역할

지안 준비

2023년 2월



APLN

ASIA PACIFIC LEADERSHIP NETWORK
FOR NUCLEAR NON-PROLIFERATION AND DISARMAMENT

저자 소개

지안 준보 Jian Junbo (简军波)는 푸단대학교의 중국-유럽 관계 부국장입니다. 그는 중국 외교, 유럽 문제 및 국제 정치에 초점을 둔 연구를 하고 있으며, '권력의 한계: 미국의 정당성' (중국어 표기: 权力的限度: 冷战后美国霸权合法性问题研究)과 '아프리카 문제 및 중국-유럽 관계' (중국어 표기: 非洲事务与中欧关系)라는 책의 저자입니다. 또한 '확대된 유럽 연합: 전망과 영향' (영문)의 공동 편집자이기도 합니다.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유럽에서 중국 외교관으로 근무했으며 더럼대학교, 브뤼셀 자유대학교, 올보르대학교 및 런던정치경제대학교에서 객원 교수로 재직하였습니다.



@APLNOfficial



apl.n.network



@APLNOfficial



@APLNOfficial

아시아 태평양 핵 비확산 군축 리더십 네트워크 (APLN: Asia-Pacific Leadership Network for Nuclear Non-Proliferation and Disarmament)는 특히 핵무기 위협을 해결하고 제거하는 데 중점을 두고 안보 문제 및 국방 문제를 해결하는 아시아 태평양 국가의 정치, 군사 및 외교 지도자 네트워크입니다.

© 2023 Jian Junbo

이 보고서는 4.0 국제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에 따라
게시되었습니다.

이 발행물은 뉴욕 카네기
코퍼레이션 (Carnegie
Corporation of New York)에서
기금을 지원받아
출간되었습니다.

여기에 표명된 내용은 저자
자신의 견해일 뿐 제휴 기관,
APLN 또는 그 소속 직원,
이사회 또는 기금 지원자의
의견을 반영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음 연락처로 직접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Asia-Pacific Leadership Network
APLN Secretariat
4th floor, 116, Pirundae-ro Jongno-gu,
Seoul, ROK, 03035 Tel. +82-2-2135-2170
Fax. +82-70-4015-0708
Email. apl@apl.network

이 발행물은 무료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www.apln.network.



표지 사진: iStock/ William_Potter

중미 관계에서 학계의 건설적인 역할

지안 준보

국제 관계 학자들은 그들의 연구가 여론을 흔들거나 외교 정책 결정권자들의 생각에 영향을 끼치는데 사용될 수 있기 때문에 독자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많은 학자들은 정치적 의사 결정자에게 직접 자문을 제공하거나 트랙 II 대화를 통해 공식적인 외교에 도움을 줌으로써 외교에 참여합니다.¹ 이상적으로 학술 연구는 진실과 객관성의 탐구에 기반을 두어야 하며 특정한 정치 집단의 이익을 위해 쓰여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학계와 정계 사이의 국제 관계 학자들의 위치는 종종 학술 연구의 객관성, 중립성, 독립성을 복잡하게 만듭니다. 이는 중미 관계의 연구에서 더 명백해 집니다. 따라서 학술 교류 상황과 학자의 역할이 양국 관계에 어떠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지 분석하고, 학자들이 복잡한 양국 관계를 개선하기 위해 어떻게 노력할 수 있는지 생각해 볼 가치가 있습니다.

현재 중미 학술 교류에서 직면하고 있는 과제는 무엇입니까?

국제 환경의 급격한 변화는 중국과 미국 사이의 학술 교류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쳤습니다. 현재는 4가지 주요 과제에 당면해 있습니다. 학술 교류에 대한 공식적인 제한, 연구에 대한 국가주의의 영향, 교류의 이념적 색채, 중미 학술 교류에서 오랫동안 중국어를 충분히 활용하지 못한 것입니다.

중국과 미국 양국의 내정으로 인해 학자 간의 소통이 제한되어 왔습니다. 이러한 제한은 소통 수단을 줄이고 정상적인 교류의 분위기를 악화시켰습니다. 트럼프 행정부 때부터 미국 당국은 중국 교육 기관에서 연구에 종사하는 일부 미국 학자들을 조사하였고, 미국 학자들과 공동 연구 활동 및 교류에 참여하는 중국 학자들을 포함한 미국에서 일하는 중국 학자들에 대한 정밀 조사를 늘려 왔습니다.² 이것들은 모두 양국 간의 학술 교류의 사기를 저하시켰습니다. 워싱턴에 있는 미국 과학 진흥 협회의 전 수석 과학 정책 고문인 고이즈미 케이에 따르면, “일부의 미국 과학자들은 이제 중국의 연구자들과 협력하여 조사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위험을 감수하는 것은 무의미하다고 생각하며, [...] 일부의 중국

1 Otto Federico von Feigenblatt, “Flexible Diplomacy: Scholars as Key Players in Track II Diplomacy”, *Espiraes Revista Multidisciplinaria de investigación*, 2019, 3, 28, 32-45.

2 Emily Feng, “China tightens restrictions and bars scholars from international conferences”, *NPR*, 30 March 2022, <https://www.npr.org/2022/03/30/1089631713/china-tightens-restrictions-and-bars-scholars-from-international-conferences>.

과학자들도 같은 생각을 하고 있을 것입니다.”³ 코로나19 대유행 이후 중국의 엄격한 제로 코로나 정책으로 인해 중국에서는 양국 간 학자들의 정기적인 상호 방문이 차단되었습니다. 지난 5년간 중국과 미국 사이의 팬데믹과 분쟁, 중국과 미국 간의 정치적인 면에서의 갈등은 양국간의 학술 교류에 영향을 끼쳐 교류가 점점 드물어지고 소통은 점점 더 좌절되고 예측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학자들은 또한 국가주의적 사상에 점점 더 영향을 받아 그들의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분석 능력을 약화시키고 있습니다. 서로 다른 견해는 학술 연구에 있어서 당연하고 바람직한 것입니다. 그러나 학자들이 국가주의적 편견을 가지고 국제 관계에 접근하면 그들의 연구에서 필요한 객관성과 중립성을 상실하게 됩니다.



베이징대학교 캠퍼스(iStock/bingdian)

3 Andrew Silver, “Scientists in China say US government crackdown is harming collaborations”, *Nature*, 8 July 2020, <https://www.nature.com/articles/d41586-020-02015-y>.

중국 학계에는 “과학에는 국경이 없지만 과학자에게는 조국이 있다(科学无国界, 科学家有祖国)”는 말이 잘 알려져 있습니다. 중국 학자들은 일반적으로 애국심을 요구 받습니다.⁴ 물론 조국을 사랑하는 것은 아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학자의 경우 학문적 중립성과 애국심 사이에서 만약 두 관계의 방향을 잡는 필요한 기술이 부족하다면 국가주의적 사상으로 인해 연구의 객관성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미국의 학문적 전통은 객관성, 중립성 그리고 합리성을 자랑합니다. 거시적인 관점으로 보면 그것은 미국의 국익에 기여했으며 상당한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국제 관계 이론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소프트 파워 이론(조세프 나이), 신제국론(월터 라피버), 패권안정론(로버트 코헤인)은 모두 미국의 국제 관계 학자들이 제창한 것으로 이를 정당화함으로써 미국 패권을 방어하였습니다. 미국 주요 매체는 중국을 어떻게 “이기는 지”, “대항하는 지” 또는 “겨루는 지”에 대한 기사가 일반적입니다.⁵

물론 학자가 국민으로서 자국을 위하는 것이 본질적으로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학자는 학문 연구에 필요한 객관성과 중립성의 원칙을 계속 고수해야 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학자들은 그들의 직업의 기본 규범을 잘못된 길로 빠지게 할 수 있는 국가주의의 족쇄에서 도망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중국과 미국의 학계가 국가주의적 사상에 침식되면 양국 간 학술 교류의 기반 역시 점차 약화될 것입니다.

게다가 공개 토론의 양극화로 학자들이 문제를 자유롭게 논의하는 것이 어려워졌습니다. 중국이든 미국이든 학자들은 모든 주제를 논의하거나 모든 관점을 제안하는데 충분히 자유롭지 않습니다. 미국에서 “전체주의”, “늑대 전사 외교”, “부채의 덫”, “침략”, “인권 침해”, “집단 학살”, “위협”과 같은 라벨로 중국의 정책이나 행동을 비난하였기 때문에 더욱더 많은 전문가들이 여론의 비난을 피하기 위해 중국에 대해 함구하는데 이르렀습니다. 중국 문제를 실용적이고 유연하게 다루려는 싱크 탱크나 전문가들의 방식이 미국에서 ‘소외’ 되었다고 하면 과장된 말일 수도 있지만,⁶ 중국에 대해 비교적 중립적인 미국의 전문가들이 영향력 있는 매체에서 양국 관계에 대해 논평하는 것이 줄어든 것 같습니다.

4 Sun Yahui, “Science has no borders, scientists have their motherland” (科学无国界 科学家有祖国), *Xinhuanet*, 9 June 2021, http://www.xinhuanet.com/politics/2021-06/09/c_1127544365.htm.

5 See for example: Richard Fontaine, “Taking On China and Russia: To Compete, the United States Will Have to Pick Its Battles”, *Foreign Affairs*, 18 November 2022, <https://www.foreignaffairs.com/united-states/taking-china-and-russia>; H.R. McMaster and Richard Scheinmann, “U.S. Restraint Has Created an Unstable and Dangerous World: Decades of ignoring the menaces posed by Russia and China has led the West to a precipice”, *Foreign Policy*, 17 June 2022, <https://foreignpolicy.com/2022/06/17/us-military-strategy-geopolitics-restraint-russia-china-ukraine-war/>; Richard D’Aveni, “The U.S. Must Learn From China’s State Capitalism to Beat It”, *The Atlantic*, 6 November 2012, <https://www.theatlantic.com/business/archive/2012/11/the-us-must-learn-from-chinas-state-capitalism-to-beat-it/264552/>.

6 Li Haidong, “America’s ‘China expert’ has become a huge irony”, *Global Times*, 2 August 2022, <https://www.globaltimes.cn/page/202208/1272092.shtml>.

반대로 중국에 대해 강경한 태도를 유지하는 학자들은 더 많은 결과물을 만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와 비슷하게 중국에서도 학자들은 중국 국가주의자들의 비판이 두려워 미국이 개입하기를 원하는 특정한 국내 문제에 대해 논의하는 것을 꺼립니다. 이와 동시에 학자들은 스스로 우려의 의사표시를 하면 그러한 문제가 중국의 공식 정책에 대해 불필요한 논쟁이나 오해를 일으킬 수 있다고 걱정합니다. 따라서 양측의 학자들은 학자 란스 고어가 주류 여론에 의해 형성되는 “정치적 정당성”의 한 형태라고 부른 것과 자신의 정당성에 대한 판단은 상대방에 대한 강경의 정도라는 것에 사로잡히게 되었습니다. 그런 태도는 정직한 학자들의 객관적이고 심도 있는 독자적인 연구를 방해할 뿐만 아니라, 부정적인 대중 정서나 특정 정책 입안자들의 구미에 맞추는 비양심적인 학자들이 전문적인 이력을 높이고 경제적 이익을 취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에 힘을 실어 줍니다. 고어는 “반중국”과 “반미”가 각 국가에서 정치적으로 정당한 입장이 되어버려 많은 학자들이 문제를 피하기 위해 자신의 연구를 스스로 검열하게 된 것을 애통해 하였습니다.⁷

언어 능력의 부족은 중국과 미국 간의 정상적인 학술 교류에 있어서 또 다른 장기적인 방해 요소입니다. 중국 관련 문제를 연구하는 학자들 중에 중국어를 잘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어 문제는 미국 쪽에서 더 심각해 보입니다. 이 유감스러운 발전은 존 킹 페어뱅크와 같이 깊은 언어 지식을 가지고 심지어 한자로 된 복잡한 텍스트를 읽고 이해할 수 있었던 전통적인 미국의 중국학 학자들과 극명한 대조를 이룹니다. 어떤 의미에서 중국학은 “중국 연구”로 인해 가려져왔습니다. 전 세계에서 중국의 영향력이 커지면서 미국의 전문가들은 중국의 언어, 역사, 전통 문화보다 현대 정치, 사회, 외교 정책에 더 관심을 두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중국학에 관한 급속한 발전과 다양화가 있었지만 언어 능력의 부족으로 미국 학계는 중국어 자료에 직접 접근할 수 없어 번역으로 중요한 뉘앙스를 잃을 위험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미국은 미국 내에 있는 공자학당의 수를 크게 줄여 중국어가 가능한 인재 양성을 저해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국가아시아연구국(NBR)과 같은 일부의 미국 기관은 어학 공부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물론 상기의 어느 것도 미국의 중국 학자 또는 전반적인 중국 국제 관계 연구원이 그들의 언어에 문제가 없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7 Lance Gore, “The curse of political correctness in China and the US”, *Think China*, 24 March 2022, <https://www.thinkchina.sg/curse-political-correctness-china-and-us>.

8 National Bureau of Asian Research, “Chinese Language Fellowship Program”, 2019, https://iclp.ntu.edu.tw/tw/upload/download_files/eaebaf3d92216d7c4ba03b972a2c9e5a.pdf.

전반적으로 언어는 중국 대학의 지역 연구 부서에서 약점으로 남아 있기는 하지만 미국학을 연구하고 있는 대부분의 학자들은 최소한의 영어를 마스터했습니다. 그러나 중국의 미국학 학자들의 가장 큰 문제는 양국 간의 학술 출판물 및 정보의 교환이 비교적 제한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중국 학자들은 미국의 책과 기사가 중국어로 거의 번역이 되지 않기 때문에 미국 문제에 대해 그들이 알아야 할 만큼 잘 알지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또 일부 학자들은 학술 연구를 위해 가장 효율적인 검색 엔진 중의 하나인 구글을 중국에서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제한된 양의 번역물이나 2차 자료에 의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게다가 많은 중국 대학 도서관이 국제 학술 데이터베이스를 구독하고 있지만 접근이 가능한 데이터베이스와 구독할 수 있는 대학이 너무 적습니다. 또 다른 문제는 많은 중국 학자들이 미국에서 현장 연구를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는 지역 연구 규율이 도입되었던 1980년대에는 현장 연구에 사용할 수 있는 자금이 거의 없었던 중국 연구의 관행 때문일 수 있습니다. 지금은 자금을 더 쉽게 사용할 수 있지만 오래된 연구 관행은 남아 있습니다. 요약하자면 중국에서의 미국학은 전반적인 수준은 낮지만 미국에서의 중국학의 상황과 달리 언어 능력의 문제라 하기 보다는 정보에 대한 접근성과 연구 관행에 관한 문제입니다.⁹



iStock/ BrianAJackson

9 Ma Jun, “‘Our American studies are too weak’: Chinese scholars warn of knowledge gap with US peers”, *South China Morning Post*, 23 May 2021, <https://www.scmp.com/news/china/diplomacy/article/3134371/our-american-studies-are-too-weak-chinese-scholars-warn>.

중미 학술 교류의 활력을 어떻게 회복할 것인가?

학자들 사이의 더 많은 소통이 중미 관계를 개선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는 것은 자명합니다. 만약 학자들이 동의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대화는 의사소통과 의견 공유의 기회를 제공하고, 학자들이 어디에서 오해가 발생하는지 파악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으며, 그리고 그들이 자신의 학계에 통찰력을 가져올 수 있게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중국과 미국의 학자들은 정상적인 학술 교류를 재개할 방법에 대해 어느 정도의 합의점을 찾아야 합니다. 합의점을 찾으려면 편협한 국가주의적 사상을 버려 중립적이고 객관적인 자세와 각자의 진상 조사 노력에서 높은 수준의 엄격함을 유지해야 합니다. 그러나 열악한 정치적 양국 관계를 고려해보면 학자들은 학자의 일인으로서, 그리고 그들의 전문 분야에서 살아남아야 하기 때문에 국가주의적 사상을 완전히 포기하고 정치적 정당성에서 벗어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하지만 중미 학술 교류에 참가하는 사람들이 그러한 교류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몇 가지 있습니다.

첫번째로 학자들은 갈등 해결의 원칙을 바탕으로 서로 소통해야 합니다. 양국의 학자들이 갈등을 피할 수 있다고 믿는다면 그들은 중국과 미국 사이의 평화 촉진을 위해 노력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명성을 높이거나 자금을 확보하기 위해 국내에서 급증하는 국가주의에 부응하여 양국간의 긴장을 일부러 악화시키는 것보다 상호간의 화해에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예를 들어 양국의 학자들은 문제점이나 적대적인 정책에 초점을 맞춰서는 안되며 한 국가가 어떻게 다른 국가를 이기고, 경쟁하고, 대항하는 지에 대해 논의해서는 안됩니다. 학자들은 어떻게 긴장을 완화시키고 관계의 안정성을 유지하는 지에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다수의 학자들이 이 조언에 따른다면 그들의 학술 연구는 중국과 미국의 외교 정책 입안자들이 분쟁을 해결하는 데 사용될 수 있습니다. 미국과 중국 학자들에 의한 공동 연구는 화해에 도움이 되는 분위기를 만드는 데 공헌할 수 있습니다.

두번째로 학술 교류는 공통의 기반을 추구해야 하며 의견의 차이를 해소할 수 없을 때 그 합의점을 찾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해야 합니다. 확실히 중국과 미국은 전략적인 부분에서 많은 문제에 대해 심각한 차이를 가지고 있지만 이에 계속 주안점을 두면 다른 분야에서 더 많은 차이를 만들 뿐입니다. 따라서 학계가 양국의 화해를 촉진하는 역할을 한다면, 그 교류는 차이를 확대하기보다 없애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모순에 직접 직면하는 것이 그것을 해결하는 첫걸음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는 이 생각이 맞을지 모르지만 모순이 너무 많아 직접적으로 부딪혀 더 큰 모순만 생긴다면 처음에는 그것들을 아예 무시하고 다른 문제들에 대해 합의점을 찾는 것부터 시작해서 관계 개선을 도모하는 게 낫습니다. 즉, 갈등을 해소할 시기가 아니더라도 안정성을 유지할 수 있는 기회가 남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양측의 학자들은 대만이나 남중국해와 관련된 문제에 대해 의견의 차이를 해결하는 것은 큰 합의점에 도달할 가능성이 낮지만, 공동 연구를 하거나 국제 회의를 열어 여행 제한 해제, 투자 문제 해결과 같은 해결하기 쉬운 문제와 기후 변화 대처, 대량 살상 무기 확산과 같은 명백한 공동 관심사이자 더 복잡한 양국의 문제점들의 해결을 논의할 수 있습니다.

학술 교류에서 채택된 “차이점은 보류하면서 공통점 찾기” 방법은 양국간의 상호 정치적 신뢰를 확립하는 데 어떠한 영감을 줄 수 있을 것입니다. 중국과 미국은 많은 글로벌 문제 해결을 위해 꼭 필요한 파트너로 남아 자국의 내부 경제 문제를 해결하는 데 서로 도와야 합니다. 학자들이 공동의 이익에 초점을 맞추고 관련 문제에 대한 합의점을 찾는다면 빈약한 합의라 하더라도 사안에 대해 상충되는 부분에 대한 민감성을 넘어 협력적인 분위기를 만들어 낼 것입니다. 양국 학계 간의 상호 신뢰는 서서히 서로의 사회와 정부로 옮겨져 양국 관계 개선에 이바지할 수 있습니다.

세번째로 아시아 태평양 지역 학자들의 학술 교류 확대가 필요합니다. 중미 관계의 개선은 아시아 태평양 지역 전체의 평화와 보안을 위해 중요합니다. 따라서 해당 지역의 학자들은 중미 관계에 학술 교류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방관하지 말고 중미 관계와 지역 문제에 편견을 표출하는 것을 피해야 합니다. 어떤 지역 학자들은 중국과 미국 사이에 더 많은 분쟁을 키우지는 않을까 하는 두려움에 양국 관계에 대해 논의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더 많은 지역 학자들이 학술 교류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면 이는 중국, 미국 및 지역 간의 상호 이해 개선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또한 특히 지역 정치 상황이 더 복잡해지고 위험해졌을 때 중국과 미국 간의 충돌을 해결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입니다. 지역 내의 제3국 학자로서 지역 안보와 번영에 대한 자신들의 견해를 표현할 수 있는 능력뿐만 아니라 책임감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중국과 미국 간의 학술 교류처럼 이 지역의 제 3국의 학자들도 합의와 지역 평화를 촉진하는 것을 목표로 해야 합니다. 공공 학술 포럼과 매체에서는 역사 문제와 주권 문제에 대한 논란을 들추지 말고 잠재적인 지역적 협력에 대한 제안을 해야 합니다. 요약하면 아시아 태평양 학자들이 국가 간의 합의점을 구하고, 공동의 문제를 찾고, 공동의 해결책과 협력 방법을 찾음으로써 “공동체” 혹은 “가족” 의식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아시아 태평양 지역 통합 과정에 도움이 될 것이고 전반적인 지역 관계를 개선할 것입니다.



상하이, 중국 - 2022.11.30.: 사람들이 새로운 코로나 규제 이후에 홍차오 기차역의 영구 PCR 검사소에서 코로나-19의 면봉 테스트를 위해 줄을 서 있습니다. 2022년 12월부터 대부분의 규제가 풀렸습니다. (Credit: iStock/ anilbolukbas)

학술 교류를 통해 중미 관계를 개선하고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안정을 촉진하는 법은?

중국과 미국 간의 정상적인 학술 교류의 원활한 재개를 위해 몇 가지의 구체적인 정책과 조치를 도입해야 합니다.

첫번째로 비자 신청을 더 쉽고 편리하게 만들고 여행 규제를 해제합니다.

코로나-19 발병 이후 중국과 미국 간의 항공편은 드물고 비싸졌습니다. 더욱이 각 나라들은 서로에게 적은 수의 비자를 승인하고 있습니다. 이는 학술 관계자들의 교류와 양국간의 귀중한 대면 교류에 불필요한 장애물입니다. 이런 장애물들은 중미 간의 정상적인 학술 소통에 도움이 되지 않으며 양국 학자들이 우호적인 관계로 발전될 수 있는 기회를 막습니다. 인터넷 상의 대화와 디지털 회의는 대면 만남을 절대 대체할 수 없습니다. 양국의 적극적인 여행 장려는 학술 교류의 문을 효과적으로 열어줄 것입니다. 중미 관계 악화의 위험도가 팬데믹 위험도보다 크고 또한 후자의 위험도는 점점 감소하고 있다는 것을 고려한다면 중국과 미국 정부는 포스트 팬데믹 시대의 학계를 지원하고 항공편을 서서히 복구하기 위해 비자 신청 절차를 보다 편리하게 만들고 장기 체류 비자를 늘리기 위해 협상해야 합니다. 이 글을 쓰는 시점에 중국의 해외 여행 규제가 해제된 것은 이러한 점에서 환영할 만한 발전입니다.

두번째로 양측의 더 많은 학자와 학생들이 서로 소통할 수 있도록 하고 추가적인 제한을 도입하지 마십시오.

여행 규제의 해제가 그 첫걸음입니다. 그 다음은 학술 교류 제한을 해제하는 것입니다. 과학 기술 분야에서 미국 정부의 중국과의 교류 탄압은 정상적인 학술 활동을 저해하였습니다. 미국의 한 교육 정책학 및 실습 교수는 "미국에 기반을 둔 많은 연구자들이 미국 법무부가 추진하는 '중국 이니셔티브'에 의해 기소되는 것이 두려워

중국과의 관계를 포기했다.”¹⁰고 말했습니다. 다행히 2018년에 시작된 이 이니셔티브는 2022년에 종료되었지만 그 영향이 아직까지 남아 있어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예를 들어 한 미국의 카네기 국제 평화 기금을 위한 보고서의 작성자는 “미국의 정책 입안자들은 양국의 기술 상호 의존성을 억제하는 데 사용할 많은 다른 도구를 확실히 파악해야 한다”¹¹고 말했습니다. 좋은 소식은 지금까지 미국이 양국의 사회학 교류를 차단한 것은 중국에 대한 공식적인 정책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양국의 국제 관계론과 사회학의 학자들은 중미 관계 개선을 위한 분위기를 만드는 데 도움이 될, 지역 안정성을 보장하고 협력을 촉진시킬 방법을 제시해야 합니다. 학계와 학자들의 성과는 정치권이 서로를 협박하는 도구로 쓰여서는 안되고 양국 관계를 안정시키고 지역 안정성을 강화하는데 쓰여야 합니다.

세번째로 양국의 학자, 싱크 탱크, 연구 기관, 대학들은 글로벌 문제 논의에 전념하고 중미 협력을 위한 공간을 찾아야 합니다

공동으로 제기되는 실용주의적 접근 방식은 미중 협력 정치입안자들에게 실질적인 기회를 찾을 수 있도록 고무시킬 수 있기 때문에, 세계 문제에 대한 양국 간의 협력적인 학술적 논의는 양국에서 발표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양국 관계의 개선을 촉진하기 위한 양자 간의 학술 교류는 글로벌거버넌스에서의 협조에 대한 논의에서 출발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학자들이 상대측의 동료들에게 좀 더 공감할 가능성이 높은 점을 감안하면, 공동 연구가 레드 라인과 정책 의도에 대한 오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중국과 미국 학자가 짝을 이뤄 공동의 연구 계획을 만들고 같은 주제를 가지고 연구하는 것이 실행 가능한 선택안이 될 수 있습니다. 토론 주제에는 기후 변화, 에너지난, 대량 살상 무기 확산, 지역 평화 유지, 생물의 다양성, 해양 환경 관리, 빈곤 감축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양국 학자 간의 합의 형성은 좀더 쉽게 이러한 토론 주제에 대해 논의하는 것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연구자들과 관계 기관은 그들 공동의 노력의 결과가 많은 대중과 정책 입안자들에게 알려질 수 있도록 신중하게 미디어 지원 전략도 만들어야 합니다. 이러한 방식의 인식 향상은 중미 관계에 우호적인 분위기를 만드는데 도움되며 정책 입안자들이 그 이상의 관계 개선 방법을 찾도록 영감을 줄 수 있을 것입니다. 어쨌거나 대만해협, 중국의 신장 문제, 세계 무대에서의 미국 패권적 행위 등 논란이 많은 주제보다는 글로벌 이슈의 해결안을 논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¹⁰ Holly Chik, “US scientists keep ties with Chinese peers despite crackdown: researcher”, *South China Morning Post*, 21 July 2022, <https://www.scmp.com/news/china/science/article/3186122/us-scientists-keep-ties-chinese-peers-despite-crackdown>.

¹¹ Jon Bateman, “U.S.-China Technological ‘Decoupling’: A Strategy and Policy Framework”, Carnegie Endowment for International Peace, 25 April 2022, https://carnegieendowment.org/files/Bateman_US-China_Decoupling_final.pdf.

다시 말해 협력을 논의하는 것은 양국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이 아니라 화해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향후 진정한 화해 협력을 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학술 교류는 정책 입안자와 대중에게 도달하기 위한 확고한 노력으로 양국의 정부가 관심을 가질 수 있는 협력에 대해 실현 가능한 제안을 할 수 있게 만듭니다.

네번째로 양국 학자들은 지역 및 국제 질서의 평화적인 전망을 위한 아이디어를 제시해야 합니다.

대부분의 중미 마찰은 양국이 미래의 국제 질서를 바라보는 각각의 시각에서 비롯됩니다. 미국 학자들은 자유적인 국제 질서의 유지와 확장에 지나친 관심을 기울이는 반면, 중국 학자들은 국제 질서의 다극성과 공정성을 지나치게 강조합니다. 그러므로 양국 학자들은 학술 교류를 통해 미래의 국제 질서에 대해 합의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이러한 합의는 중국의 부상을 수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규칙에 기반한 자유 질서라는 미국의 시각을 유지할 수 있으며 그리하여 세계가 있어야 할 여러가지 방식에 대한 분열로 인한 갈등 악화를 막을 수 있습니다.

물론 두 나라가 원하는 국제 질서는 상충되고, 미국 학자들이 의식적으로(때로는 무의식적으로) 미국의 이익을 위해 일하는 동안 중국 학자들은 "조국"을 위해 일해야 하지만 국제 세계 질서의 본질에 대한 합의에 이르는 것이 공통된 목표입니다. 그러나 양국 사이에 존재하는 차이점에도 불구하고, 국제 세계 질서의 본질에 대해 적어도 몇 가지 공통된 생각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유엔의 두 창립 멤버이자 유엔 안전 보장 이사회의 오랜 회원인 미국과 중국은 유엔 헌장과 제2차 세계 대전 이후에 현대 세계 질서를 건설하기 위해 필요한 다른 중요 문서들을 공동으로 발의한 국가입니다. 양국은 세계의 안정성, 경제적 번영, 원칙적으로 주권의 평등, 경제와 사회 분야의 인권을 증진시켜야 한다는 것에 동의합니다. 서로가 공동으로 공유하고 있는 국제 질서에 대한 생각은 흔히들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많습니다. 그런 점을 고려하면 양국 학자들은 더 나은 세계 질서를 논의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중미 협력 방법을 제안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다섯번째로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 학자, 정책 입안자, 관찰자들의 안정적이고 협력적인 네트워크를 설립해야 합니다.

개별 국가의 이익보다 아시아 태평양 지역 전체의 이익에 초점을 둔 논의가 지역 평화의 전도유망한 미래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이 지역의 학자들은 이곳을 분열된 분쟁의 지역이 아닌 하나의 공동체로 여겨야 합니다. 더 나은 학술 교류 활성을 위해 지역 거버넌스, 평화, 안정화에 전념하여 위해 노력하는 학계, 정책 입안자, 관찰자들을 연결하여 보다 넓은 범위의 아시아 태평양 학술 네트워크를 연결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 네트워크는 지역 학자들이 아시아 태평양 문제에 대한 토론에

참여하도록 설득해야 하고 합의 선언, 성명 또는 학술 연구를 통해 지역 안정성과 번영과 같이 중미 화해와 협력을 촉진하기 위한 넓은 아이디어와 방법을 제공해야 합니다. 다행스럽게도 아시아 태평양 리더십 네트워크(APLN)와 아시아 태평양 안보 협력 대화 위원회(CSCAP)와 같은 일부 네트워크는 이미 지역 및 글로벌 질서뿐만 아니라 지역 및 글로벌 질서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학계, 정책 입안자 및 관찰자들을 한자리에 모으고 있습니다.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국제 관계 안정에 학자들이 더 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이러한 네트워크의 역할을 강화해야 합니다. 이러한 네트워크가 학술 세미나나 워크숍을 개최한다면 참가자들이 서로를 알아가고 서서히 신뢰를 쌓을 수 있도록 그 지속성에 중점을 두어야 합니다. 점진적인 신뢰 회복은 더욱 심도 있고 건설적인 논의를 가능하게 할 것입니다.

결론

물론 미국과 중국 어느 나라도 두 나라의 전반적인 관계에 도움이 되는 학술적 노력의 효과를 과장해서는 안 됩니다. 중미 관계의 기본은 지도자와 외교 정책 입안자들에 의해 결정됩니다. 또한 정치적, 사회적 제도의 차이로 인해 중국의 학자들의 역할은 미국의 학자들과 다르며, 아시아 태평양의 다른 국가 학자들이 수행하는 전문적, 사회적 역할도 마찬가지로 다르다는 점에 주의해야 합니다. 따라서 중미 관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방법도 역시 서로 다릅니다. 그래서 서로 다른 사회 시스템을 가진 아시아 태평양 학자들에게 중미 관계의 화해와 지역 안정을 공동으로 촉진하는 역할을 하는 것은 과제가 될 것입니다.

중국과 미국 간의 학술 교류에 참여하는 것 외에도 학자들은 그들의 정부가 강력하고 합리적이며 평화 지향적인 국내 정책 토론을 할 수 있도록 돕는 데 기여할 책임이 있습니다.

미중 관계의 발전은 두 나라의 관계를 증진시키는데 있어 학자들의 역할에 영향을 끼칠 것입니다. 다행히 양국 정부는 경쟁을 조절하고 대치 상황으로 빠지는 것을 막기를 갈망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는 상호 신뢰를 만드는 데 좋고 결과적으로는 양쪽의 학술 교류의 전망을 개선하고 학계가 더 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할 것이며 이상적으로는 교류 개선의 선순환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특히 공식적 소통이 교착 상태에 빠져 있을 때를 비롯해 어떤 상황이라도 중미 관계 개선을 위한 학문의 역할은 강화되어야 합니다. 특히 상호 증오에 치우친 것처럼 보이는 이 결정적인 시점에 학자들은 다른 나라 사람들 사이를 화해를 촉진시키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해야 합니다. 중국, 미국 그리고 다른 아시아 태평양 국가의 학자들은 세계 두 초강대국인 미국과 중국 간의 적대감을 줄이고 협력을 촉진하기 위해 상대국 및 자국정치인들과 소통에 관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적극적으로 찾아야 합니다.

중국과 미국 간의 학술 교류에 참여하는 것 외에도 학자들은 그들의 정부가 강력하고 합리적이며 평화 지향적인 국내 정책 토론을 수행하도록 도와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APLN 미국-중국-아시아 대화

시종일관 악화일로를 걸어 온 중국과 미국의 관계가 앞으로 더욱 악화될 가능성이 있다. 이로 인해 야기되는 안보 딜레마는 공포, 불신, 군비 경쟁을 부추기고 아시아태평양 전역과 전 세계 모든 국가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 잠재적인 여파에는 군사적 대립과 핵 고도화 가능성이 포함되며, 21세기에 직면한 다양한 과제에 대한 국제적 협력 시도를 약화시킬 수 있다.

APLN의 프로젝트인 미국-중국-아시아 대화는 일련의 학술적 교류와 발행물을 통해 이해 증진, 잘못된 인식 감소, 위험과 긴장 완화, 신뢰 구축에 어떤 단계가 필요한지 평가한다. 이 프로젝트는 특히 아시아태평양과 워싱턴, 베이징의 의사결정자와 정책 공동체를 위한 실용적인 정책 권고를 고안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아시아태평양 핵비확산군축 리더십 네트워크(APLN)는 핵무기 위협을 완화하고 제거하는 데 초점을 두고 글로벌 안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는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정치, 군사 및 외교 지도자 네트워크로, 서울에 소재하고 있다.

APLN의 임무는 핵 및 기타 대량살상무기(weapon of mass destruction, WMD) 위협에 중점을 두고 지역 안보 위협을 해결하기 위해 고안된 정책 권고안을 알리고 토론을 활성화하고 행동에 영향을 미치며, 핵무기와 기타 대량살상무기가 봉쇄되고 축소되어 결국 제거되는 세상을 이룩하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일에 기여하는 것이다.



ASIA-PACIFIC LEADERSHIP NETWORK
FOR NUCLEAR NON-PROLIFERATION AND DISARMAMENT



apl.n.network



@APLNoofficial



@APLNoofficial



@APLNoofficial